

# 중국·북한 경제 협력과 변경 무역의 현황

吳德烈 /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

## 중국·북한 경제 협력의 강한 보완성

중국이 갖고 있는 우위와 유리한 조건

**지** 국과 북한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 속하는 개도국으로서 양국의 사회제도가 일치한다. 비록 개혁·개방 시기와 경제 발전 속도가 상이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이행하는 점은 공통된 것이라고 본다.

길림성과 요녕성은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곳으로, 이 지역은 풍부한 자연 자원, 튼튼한 공업 기초와 지리적 우위 및 친척 관계의 우위를 갖고 있으며 상호 보완성이 매우 강하다. 중국의 기업들은 대북한 경제 협력과 무역 거래를 발전시키는 데 많이 힘써왔다. 먼저 길림성을 놓고 보면 중국의 주요한 상품 곡물, 자동차, 석유화학 공업 및 임업 생산 기지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는 150만 명에 가까운 조선족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연변조선

족자치주와 渾江의 장백조선자치현 등 지역에 집중해 살고 있으며, 변경 지역의 사람들은 왕래가 빈번하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한국에 친척이 있어 지리적·혈연적 특수성을 띠고 있다. 길림성은 중국과 북한간의 경제 무역 관계 및 변경 무역 가운데서 줄곧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지금까지 조사된 길림성의 광물 자원 가운데 매장량이 전국 10위에 달하는 광물 자원의 종류는 약 40여 종에 달한다. 예를 들면, 유모혈암, 석유, 물리브덴, 금, 석탄 등이 있으며, 목재 비축량과 삼림 면적은 전국에서 수위를 점하고 있는 바, 기존 임지 면적은 608만 헥타르로서全省 토지 면적의 32.4%를 점하고 있으며 목재 생산량은 전국 2위를 점하고 있다. 야생 식물은 중초약 등을 포함하여 2,700여 종이 있으며, 관동 지구의 세 가지 보배로 불리는 인삼, 담비모피, 녹용 및 영지, 천마, 송이 등 각종 귀중한 약재로 유명하다.

요녕성은 남으로는 황해와 발해에 臨海해 있고 발해해협을 사이에 두고 산둥반도와 대

## 해외기고

칭을 이루고 있으며, 그 남단의 大連市는 중국 북방의 중요한 연해 항구 도시로서 현재 동북 지역과 內蒙古 동부 지역의 주요한 수출입 문호가 되고 있다. 요녕성의 인구는 3,900여만 명이며 자연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境內에는 광산 자원이 특히 풍부하여 현대화 공업의 발전을 위한 독특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삼림·수산물·동물 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농업, 임업, 목축업 및 어업의 전면적인 발전에 적합하다. 요녕성은 또 북한, 일본, 홍콩 및 러시아 등 세계 각 지역으로 통하는 항로를 개척하고 있다.

丹東市는 북한의 신의주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으며 全市 총인구는 281.6만 명에 달한다. 단동의 광산물은 57 종으로 그 가운데 개발 이용되고 있는 광산물은 31 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붕소와 玉石의 저

장량은 모두 전국에서 1위를 점하고 있으며, 금, 홍주석, 마그네사이트 광, 연, 아연, 대리석 등의 저장량은 요녕성에서 수위를 점하고 있다. 토지·삼림 자원 및 물자도 매우 풍부하다. 딸기, 살구, 복숭아, 밤, 紅果 등은 단동의 유명한 지방 토산물이다. 단동은 요녕반도와 조선반도의 연계 지점이며, 또한 유럽·아시아 대륙의 주요한 육지 교통 요로이다. 현재 단동 기차역의 연간 화물 운송량은 300만 톤에 달하고 있으며, 연간 出境 차례 수가 14만 차나 된다. 단동항은 북한과의 무역 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천항과 300 해리 떨어져 있어 중국과 한국간의 해상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구이며, 게다가 현재 한국에는 단동籍 화교가 1,000 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단동의 대외 개방을 위한 독특한 조건을 마련해주고

〈표 1〉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 상품(1992~94년)

(단위: 1,000 달러)

| 순위 | 1992          |        | 1993          |        | 1994          |        |
|----|---------------|--------|---------------|--------|---------------|--------|
| 1  | 철강            | (43.0) | 철강            | (69.9) | 철강            | (65.9) |
| 2  | 광물성 연료(석탄)    | (11.9) | 시멘트           | (6.5)  | 시멘트           | (8.2)  |
| 3  | 철광·슬랙·회       | (11.0) | 철광·슬랙·회       | (4.2)  | 어류            | (6.7)  |
| 4  | 어류            | (8.2)  | 어류            | (3.9)  | 모피·인조 모피      | (3.9)  |
| 5  | 시멘트           | (3.4)  | 광물성 연료(석탄)    | (2.8)  | 철광·슬랙·회       | (3.6)  |
| 6  | 목재·목재 제품      | (3.1)  | 목재·목재 제품      | (2.5)  | 목재·목재 제품      | (3.1)  |
| 7  | 아연·아연 제품      | (2.2)  | 선박·수송 구조물     | (2.1)  | 구리 및 제품       | (0.9)  |
| 8  | 종자·과실·식물      | (2.1)  | 플라스틱 제품       | (1.1)  | 광물성 연료(석탄)    | (0.8)  |
| 9  | 플라스틱 제품       | (2.0)  | 비료            | (0.9)  | 견             | (0.6)  |
| 10 | 유기화학 제품       | (1.7)  | 의류 및 부속품      | (0.7)  | 비료            | (0.6)  |
|    | 137,896(88.7) |        | 281,188(94.6) |        | 173,543(94.4) |        |

주: ( )는 수출 총액 가운데 비율(%)

있다.<sup>1)</sup>

앞에서 말한 길림성과 요녕성의 상황들은 모두 중국과 북한간의 경제 협력과 무역 관계의 추진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들이다.

#### 북한측이 갖고 있는 우위와 유리한 조건

북한은 지상·지하 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지하 보배의 나라'라고 불리고 있다. 광산 자원은 360여 종으로, 경제성이 있고 또 이미 공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0여 종에 달하고 있다. 광산물은 종류가 많고 저장량도 매우 풍부하다. 특히, 마그네사이트 광의 저장량은 36억 톤 이상으로서 전세계 저장량의 절반을 점하고 있다. 이밖에 또 동, 아연, 연 등의 7가지 광산물의 저장량도 전세계 10위를 점하고 있다. 북한의 공업용 주요 원료와 연료의 자급률은 70% 이상에 달하며 생산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연간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각종 광산 자원을 수출하고 있다. 유색 금속을 놓고 말하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텅스텐 광산을 갖고 있다. 공업 텅스텐 광석은 주로 철망간 중석과 회중석이다. 이러한 화합물은 황동광 및 기타 광산물과 밀접하게 공생되어 있다. 텅스텐 광석은 주로 만년 광산과 경수 광산에 집중

되어 있다. 가장 큰 광산은 대유동광산으로서 평안북도 동창군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의 석탄 자원 비축량은 80억 톤, 한국은 약 16억 톤으로 알려져 있다.<sup>2)</sup>

한반도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동으로는 동해, 서로는 황해, 남으로는 한국해협과 臨海하고 있기 때문에 해역이 매우 크다. 기존의 김책항과 東조선항은 해풍을 피할 수 있고 항만이 깊어 훌륭한 항구라고 볼 수 있으나, 서해안은 해안선이 구불구불하고 은폐된 항구와 해만이 많은 바, 西조선항 등은 대형 선박 항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중국과 북한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실이라고 본다.

중국과 북한간의 무역 거래를 놓고 볼 때, 양국의 무역은 1990년 5.07억 달러, 1991년 6.55억 달러, 1992년 7.36억 달러, 1993년 9.33억 달러, 1994년 6.48억 달러, 1995년 5.5억 달러, 1996년 5.1억 달러에 달하였다. 중국은 줄곧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993년은 중국과 북한의 무역액이 북한 대외 무역 총액 가운데서 36.3%를 점하여 비중이 가장 큰 한

1) 中國丹東市信息協會, 「朝鮮經濟指南」, 1995. 3 참조.

2) 朝鮮外國文出版社, 「朝鮮概觀」, 1994 참조.

## 해외기고

해가 되었다.

두 나라간의 무역은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띠고 있다. 첫째, 상호 보완성이 매우 강하다. 둘째, 운송이 편리하고 적시에 이루어지며

화물이 육로와 수로를 통해 많이 운송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주로 석유, 코크스 및 코크스 관련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전체 수입의 70.3

〈표 2〉 중국·북한간의 주요 무역 품목

(단위: 1,000 톤, 1,000 달러)

| 품목         | 연도        | 중국의 수출  |         | 중국의 수입 |         |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어개류        | 1992      | -       | 750     | -      | 12,730  |
|            | 1993      | -       | 630     | -      | 11,510  |
|            | 1994      | -       | 108     | -      | 14,525  |
|            | 1995      | -       | 180     | -      | 4,613   |
| 곡물         | 1992      | -       | 68,480  | -      | 770     |
|            | 1993      | -       | 97,680  | -      | 33      |
|            | 1994      | -       | 28,660  | -      | 221     |
|            | 1995. 1~4 | -       | 3,676   | -      | -       |
| 옥수수        | 1992      | 586.6   | 68,046  | -      | -       |
|            | 1993      | 876.2   | 94,029  | -      | -       |
| 정미         | 1992      | 0.0     | 4       | 4.9    | 722     |
|            | 1993      | 12.5    | 2,178   | 0.2    | 33      |
| 소맥분(穀粉)    | 1992      | 60.3    | 12,654  | -      | -       |
|            | 1993      | 37.4    | 5,257   | -      | -       |
| 토석·시멘트     | 1992      | -       | 3,520   | -      | 5,290   |
|            | 1993      | -       | 5,470   | -      | 19,460  |
|            | 1994      | -       | 5,461   | -      | 16,896  |
|            | 1995. 1~4 | -       | 1,122   | -      | 1,531   |
| 鑛物性 燃料     | 1992      | -       | 222,320 | -      | 18,530  |
|            | 1993      | -       | 237,860 | -      | 8,300   |
|            | 1994      | -       | 176,460 | -      | 1,649   |
|            | 1995. 1~4 | -       | 60,537  | -      | 386     |
| 무연탄        | 1992      | -       | -       | 711.2  | 17,603  |
|            | 1993      | 6.6     | 173     | 154.9  | 3,246   |
| 유연탄        | 1992      | 1,369.2 | 62,057  | -      | -       |
|            | 1993      | 1,567.5 | 69,868  | -      | -       |
| 원유         | 1992      | 1,005.6 | 138,077 | -      | -       |
|            | 1993      | 1,033.0 | 139,874 | -      | -       |
| 인조 섬유(장·단) | 1992      | -       | 12,090  | -      | 330     |
|            | 1993      | -       | 8,660   | -      | 1,340   |
|            | 1994      | -       | 16,380  | -      | 464     |
|            | 1995. 1~4 | -       | 7,805   | -      | 70      |
| 철강·철강 제품   | 1992      | -       | 12,090  | -      | 67,190  |
|            | 1993      | -       | 18,330  | -      | 208,610 |
|            | 1994      | -       | 9,876   | -      | 126,937 |
|            | 1995. 1~4 | -       | 4,212   | -      | 4,846   |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경공업 원료와 기계 설비, 화학 비료, 면화, 원염, 석고 등 공업·에너지 급수품도 수입하고 있다. 1994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화학 비료는 10만 톤이며 금액은 1,000만 달러에 해당하였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시아, 강제, 연, 아연 등의 유색 금속과 시멘트 및 수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다. 북한의 광산물과 수산물은 對중국 수출 가운데서 비중을 비교적 크게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간의 합자·합영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사실은 세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1984년 북한이 「합자기업법」을 반포한 후, 중국은 북한과 평양, 신의주, 남포 등지에서 잇달아 합자 기업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또 냉동기, 세탁기, 맥주, 식품 가공 공장 등의 영역에 관한 경제 기술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단동의 기업가들은 이미 북한에 합자 기업 5 개를 설립하였다. 遼寧省國際貿易公司 丹東分公司는 북한의 오륜무역회사와 합자로 평양에 '青春館'을 설립하고 주로 중국과 북한 양국의 음식, 담배, 술과 컬러 사진 확대 현상 등의 업무를 경영하고 있다. 또 북한 국제합영회사와 합자로 신의주에서 '신의주과일야채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주로 흰 술을 생산하고 있다. 丹東寬甸縣百貨公司和 북한 옹호무역회사는 평양에서 합자로 '평양송림거품제공장'을 설립하고, 고·중·저급 거품제를

생산하고 있다. 단동시 糧油食品外貿會社는 북한 비봉무역회사와 남포시에서 합자로 '간석지양식공사'를 설립하고 현재 참새우 시험 양식을 시작하였다. 丹東市 元寶區 과학기술 위원회와 莊河黑島水產總公司는 북한 봉화무역총공사 공업국과 신의주에서 합자하여 3,000 畝(1畝는 6.667 a)의 새우 양식장을 소유한 '반도수산양식공사'를 설립하였다. 1995년 말까지 중국측의 對북한 투자 기업은 21 개로서 협의 금액은 약 4,000만 달러에 달했다. 북한의 對중국 투자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長春, 沈陽, 北京 및 廣州 등지에는 계속하여 북한 경제 무역 상사들의 지점이 설립되고 있으며 현재 북한의 유학생들도 중국으로 많이 오고 있다.

북한 경제는 공업과 농업 생산 수준이 저하되고 에너지와 원자재 등이 부족함으로써, 경제 진흥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더욱이 대외 무역의 진전이 없으므로 국내 경제 건설에서 더욱 큰 곤란을 받고 있다. 1994년 상황을 보더라도 북한과 중국·러시아와의 무역액은 각각 28.4%와 77.1%로 떨어졌다. 국내 투자 면에서, 1993년 건설 분야에 투자한 프로젝트는 54 개에서 1994년도의 31 개로 줄어들었다.

훈춘개발구와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훈춘은 북한의 나진·선봉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 인근해 있는 변경 지역이다. 훈춘과 북한의 나진·선봉시와는 圈河-元丁里의 임시적인 왕래에 관한 협의를 달성하였다. 권하는 훈춘시 두만강 하류의 敬信鎭에 위치하고 있다. 훈춘과 북한의 변경 7 개 항구는 모두 여객 혹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훈춘 지역의 연간 석탄 생산 능력이 405만 톤에 달하는 훈춘 鑛務局은 현재 200만 톤의 석탄 생산 능력을 기록하고 있다. 설비 용량이 140만 kW가 되는 훈춘 발전소는 10만 kW 2 대로 발전하고 있으며, 연간 발전량은 13억 kWh, 설비 용량이 60만 kW에 달하는 2기 공사도 이미 국가 계획에 포함되었다. 동북 철도망과 연결된 총길이 65 km에 달하는 훈춘-도문 철로가 이미 개통되고, 훈춘과 러시아 항구를 연결하는 철로도 금년 중에 연결될 것이다. 훈춘과 110 km 떨어져 있는 延吉空港은 확장 건설을 거쳐 앞으로 10여 노선의 국내 항로가 개통될 것이며, 국제 항로 개척도 계획 중에 있다. 용량이 12만 문에 달하는 프로그램 제어 전화 공사도 현재 건설 중에 있다. 도시 철로 급수, 물 공급 및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도 개발 건설의 수요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북한 나진·선봉의 개발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은 의심할 바

가 없다.

그러면 나진·선봉지역의 개발 전망을 보기로 하자. 이 지역 개발 전망이 밝은 하나의 이유는, 이 지역이 중계 수송, 중계 무역, 가공 수출, 금융, 관광 서비스 등 다목적이며 복합적인 자유경제무역지역으로 개발된다는 것이다.

나진·선봉지역이 종합적으로 개발되자면 그에 필요한 조건과 가능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지역의 개발은 조건과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데, 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중계 무역, 중계 수송만 보아도 이 지역은 중계 수송, 중계 무역 중심 지역으로서의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물질적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국경의 삼각주는 바다를 끼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가장 풍요한 시장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이다. 이 지역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하는 철길과 도로들이 있으며, 약 1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방대한 동북 시장과 인접하고 있다.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 철길을 이용하여 동아시아에서 해상 수송을 통한 것보다 더 빨리, 더 싸게 유럽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나진·선봉항을 통해서 대부분의 아세아·태평양 지역들보다 더 쉽게 일본과 북미주 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다. 만약 나진·선봉항이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주요 항구

들과 항로를 개설한다면, 이 지역은 동북아시아와 주변 국가들의 중계 운송·중계 무역의 주요 시장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가공 수출과 관광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나진·선봉지역은 북한 자체의 노력과 동북아시아 나라들의 높은 관심과 의욕적인 참여 속에 머지 않아 자유경제무역지역으로 개발될 것이다.<sup>3)</sup>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역법」을 비롯하여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외국인투자법 등 여러 가지 법률 조치와 법규를 채택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 안에서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정 불간섭과 법적 보호를 취하였으며, 외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와 기업 관리 방식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주었고, 처음으로 외국 독자 기업을 허용하였다. 또한 북한은 이 지역의 하부 구조 건설을 위한 대규모적인 건설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나진국제호텔은 이미 건설되어서 손님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나진·선봉항은 새로운 시설과 설비들로 재건 확장되었다. 또한 백수십 킬로미터의 구간에는 철도 전기화가 실현되어서 화물 운송량은 늘어나고 도로 확장 건설 공사도 추진되고 있다. 태국에서 50 개 이상의 산하 회사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회사인 '록슬리그룹'이 1996년 4월에 2,800만 달러로 나진·선봉

지대의 30 년 통신망 이권을 받아 실현 중에 있다. 네덜란드 ING와 홍콩의 페레그린 등 국제 은행과 투자 회사들은 이 지역에 가지들을 창설하고 있다. 또 다른 회사들도 역청, 윤활유 및 기타 화학 제품 저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선봉항의 부지에 대한 50 년 임대 조건으로 100만 달러를 지출하였으며, 이밖에 또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보잉, 크라이슬러, 제너럴 모터스, 씨멘스, 알카텔 및 에릭슨 등의 회사들을 비롯하여 500 개의 회사들이 나진·선봉지대의 개발과 투자에 흥미를 갖고 있으며, 한국의 대우, 삼성, 쌍용 등 대기업들도 나진·선봉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재일동포가 이 지역의 호텔과 병원에 5,000만 달러의 투자를 제의한 것을 비롯해서, 在日, 在美, 在캐나다, 在중국 동포들 가운데서도 對북한 투자열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일본, 미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해외 동포들 가운데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에 있었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국제 투자와 기업 토론회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토

3) 「中國延邊日報」, 1996. 12 참조.

론회에는 26 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500여 명의 실업가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 회의와는 달리 투자 조건과 환경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회의에 참가한 나라와 기업의 요구에 따라 각이한 규모의 투자 계약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태국,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 기업들과 2억 8,000만 달러의 투자 계약이 체결되는 물질적 결실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이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투자가 실천적인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 개발구가 세계의 초점으로 떠오르게 된 원인은 총괄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이 앞으로 경제 발전에 있어서 잠재력이 가장 큰 동북아시아의 주요 창구가 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우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시베리아가 동북아시아에서 지하 자원, 인적 자원, 상품 시장이 풍부하여 경제 발전에서 매우 큰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써 이 경제 지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힘있는 경제 지역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21세기 세계 경제 중심이 태평양 연안이 되고 동북아시아가 그 중심이 되는 것을 여러 나라 기업가들이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동북아시아 경제 지대를 다른 경제 지

대들과 연결시켜주는 가장 주목되는 창구가 바로 두만강 삼각주 지역과 나진·선봉자유무역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 국경이 접한 곳으로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철로가 발달된 도로망을 갖춘 요충지로서, 여러 나라 합작과 기업인들이 이 지역을 '동북아시아의 심장', '황금의 삼각주'로 주목하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 중국·북한간의 변경 무역 현황

중국과 북한간의 경제 협력 관계에는 다각적인 경로와 다차원 무역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양국 정부간의 정상적인 무역을 제외하고도 전통적인 변경 무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1,300여 km의 국경선이 있으며, 1,000여 년의 변경 무역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4년 8월 중국 정부는 연변자치주와 북한 변경 지역간에 지방 무역을 개방하도록 비준하였다. 양국 정부는 그해 10월 19일 「물자교류계약서」를 공식 체결하였다. 이 계약서에서 쌍방의 무역 형식은 '상호 물자 교환', 즉 물물 교환으로 하고 人民幣를 가격 결제 단위를 하며 중국의 圖們과 북한의 남양, 회령, 경원, 무산을 물물 교환 지점으로 정하였다. 50년대의 중국·북한간의 계약 무역액은 919.6만 元(인민폐)으로서 실제 집행



금액은 755.5만 元밖에 되지 않았다. 그 당시 중국의 對북한 변경 무역의 주요 수출품은 식량, 원단, 기성복, 종이, 세숫비누 등 생활 필수품이었으며 북한의 수출품은 주로 해산물과 사과였다.

중국과 북한간의 변경 무역은 줄곧 물물 교환 방식으로 거래되었으며, 人民幣로 결제해 오다가 1960년부터 결제 단위를 루블로 변경하였다. 1960~61년까지 양국의 변경 무역액은 261.2만 루블, 1962~69년까지 823.1만 루블이었다. 70년대에 양국의 변경 무역은 완전히 중단되었다가 1982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스위스 프랑으로 결제하였다. 그때부터 중국과 북한간의 변경 무역은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1982년, 1983년, 1985년, 1989년, 1990년에 길림성 내의 각 회사와 북한간의 변경 무역액은 각각 102.9만 프랑, 1,199.2만 프랑, 1.1억 프랑, 1.58억 프랑, 2.29억 프랑, 1.48억 프랑에 달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측 변경 무역 부문은 3 개에서 13 개로 늘어났고, 북한의 변경 무역 부문도 3 개에서 6 개로 늘어났다. 1990년 이후 양국의 변경 무역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1년부터 북한과의 변경 무역을 달러로 계산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중국과 북한간의 변경 무역액은 1.24억 달러였다. 1992년에는 배로 증가되어 2.72억 달러에 달했으며

1993년에는 5.27억 달러에 달하였다. 중국·북한 변경 무역액이 점하고 있는 비중은 양국 무역 총액보다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1993년 중국·북한간의 변경 무역 총액은 중국·북한 무역 총액(8.9964억 달러)의 60%를 차지하였다. 북한은 對중국 변경 무역 수출의 의존성이 매우 큰 것이다. 1993년 북한의 對중국 변경 무역 수출액은 2.74억 달러로서 중국 수출 총액(2.9729억 달러)의 92%를 점하였다. 사실상 북한의 對중국 수출은 변경 무역의 수출이라고 해도 과분한 것이 아니다. 1995년 중국과 북한간의 변경 무역액은 단둥, 도문, 장백 3 개 지역의 통계만 보더라도, 3억 달러에 달하여 중국·북한간 무역 총액의 약 55%를 차지하였다.

북한은 중국의 길림과 요녕 지역의 변경 항구를 통해 옥수수, 콩, 개묵, 원단, 자동차, 재봉기, 자전거, TV, 화학 비료, 비닐 박막 등 농업과 경공업 및 화공 제품을 수입하며, 중국에 수산물, 갈대, 생철, 무연탄, 누에고치, 잣, 배니어 합판, 액화가스, 폐철강 등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바, 쌍방의 무역 품목은 수백 가지에 달하고 있다. 양국간의 변경 무역은 협력 영역이 광범위하고 산업과 제품의 상호 보완성이 매우 강하여, 쌍방 변경 지구의 발전을 유력하게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간 무역의 부족 부분도 보충해주었다. 현재 중국과 북한간 변경 지역의 무역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간의 변경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원인은 러시아의 對중국 제품 수출이 북한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개항의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간의 변경 무역이 급속히 발전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면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무역 적자 압력(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적자를 삭감하고 있음)을 받고 있으며, 북한 정부와의 협정 무역은 '국제 시장 가격에 따른 외환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외환 규제를 실행하고 있는 북한은 정부간 협정 무역에서 원유 등 전략적 물자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 무역의 방식을 통해

서 식량과 소비품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변경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둘째, 중국 정부가 바터 무역에 대해 관세를 절반 감면해주는 우대 정책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관세가 높은 상품은 북한을 대중국 수출의 중개항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가 100%인데, 북한을 통한 바터 무역의 방식으로 간접 수입하면 50%의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대외무역체제가 변경되었다. 1992년 11월부터 각 도의 지방행정위원회가 변경 무역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럼으로써 희소한 자원이 유실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과분한 경쟁으로 인한 위해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실재상 중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자동차, 트럭, 덤

〈표 3〉 중국·북한간 무역의 형태

(단위: 1,000 달러, %)

|             | 1993    |       | 1994    |       |       |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증감    | 구성비   |
| 중국의 수입 합계   | 297,294 | 100.0 | 199,217 | -33.0 | 100.0 |
| 바터 무역       | 210,281 | 70.7  | 123,388 | -41.3 | 61.9  |
| 일반 무역       | 58,629  | 19.7  | 31,845  | -45.7 | 16.0  |
| 변경 소액 무역    | 5,674   | 1.9   | 23,073  | 306.7 | 11.6  |
| 원과 수입 가공 무역 | 8,496   | 2.9   | 14,197  | 67.1  | 7.1   |
| 기타          | 14,214  | 4.8   | 6,714   | -52.8 | 3.4   |
| 중국의 수출 합계   | 602,340 | 100.0 | 424,523 | -29.5 | 100.0 |
| 바터 무역       | 291,144 | 48.3  | 166,367 | -42.9 | 39.2  |
| 일반 무역       | 274,872 | 45.6  | 214,496 | -22.9 | 50.5  |
| 변경 소액 무역    | 5,387   | 0.9   | 16,769  | 211.3 | 4.0   |
| 원과 수입 가공 무역 | 23,275  | 3.9   | 14,332  | -38.4 | 3.4   |
| 기타          | 7,662   | 1.3   | 12,559  | 63.9  | 3.0   |

프 트럭 등 수입은 러시아·동부 유럽 생산품이며, 수입의 90% 이상은 러시아 제품이었다. 중국과 북한간 변경 무역의 변영은 중국이 관세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러시아의 제품을 들여왔는가? 그것은 러시아에의 노무 수출을 통한 결과이다.

북한은 러시아와 「임업협정」을 체결하여 하바로프스크, 아무르주 등의 지역에 1.5만 명의 노무 인원을 파견하여 삼림 채벌에 종사하고 있다. 러시아는 채벌 목재의 35.5%를 실물 형식으로 노무 인원들의 월급으로 지불하였다. 북한은 80년대 말부터 노무 인원들을 파견하여 건축, 타작 마당, 농업, 석탄 발굴, 광성 채굴 등 노동에 종사하기 시작하였으며 8,000여 명이 러시아에 취직하였다. 노무 인원의 보수는 여전히 실물 형식으로 지불되었다. 건축 노동 종사에는 트럭, 덤프 트럭 등을 지급하였으며, 물론 현금으로 자동차를 사는 것도 있었다. 북한은 또 목재, 자동차, 트럭, 덤프 트럭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유, 소비품, 식품 등의 비용으로 지불하

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변경 지역의 삼각 무역이다.

1992년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이러한 목재, 자동차, 트럭, 덤프 트럭의 수입은 8,615만 달러로서 같은 시기 북한 수입 총액의 55.4%를 점하였다. 같은 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콩 5만 톤, 옥수수 51.6만 톤, 냉동 돼지고기 9,000 톤, 냉동 쇠고기 1,000 톤을 수입하였으며, 총 금액은 8,614만 달러에 달하였다. 즉,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실제로는 러시아에의 노무 수출로 지불한 것이다.

최근 이 지역의 변경 삼각 무역은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북한이 러시아를 통하여 노무 수출로 얻은 러시아 제품을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기 곤란하게 되었다. 이것은 북한이 2001년까지 30억 루블의 채무를 청산해야 하는데, 노무 수출의 일부분 보수로 채무를 갚아야 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중국으로부터 식량 수입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게다가 원유 가격이 우대 가격

〈표 4〉 1993년도 중국 동북 지방의 對북한 변경 무역액

(단위: 만 달러)

| 지역   | 對북한 수출 | 對북한 수입 | 총액     |
|------|--------|--------|--------|
| 길림성  | 22,962 | 24,164 | 47,126 |
| 요녕성  | 4,600  | 4,000  | 8,600  |
| 흑룡강성 | 10,449 | 6,448  | 17,897 |
| 합계   | 38,011 | 34,612 | 72,623 |

으로부터 국제 가격으로 변경됨으로써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액은 배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북한은 일본, 한국으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이럼으로써 일본, 한국, 북한, 중국 4국의 다각적 무역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1993년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중고 자동차 8,989 대를 수입하였으며, 가격은 45.8억 엔(전년도 4.2 배)이었다. 북한은 또 한국으로부터 대우자동차 5,000 대를 수입하되 바터 무역 형식으로 아연, 동 등 금속, 광물자를 자동차 수입의 대금으로 지불하였다. 북한은 수입한 자동차를 중국과 원유 교환을 하였다. 북한의 변경 무역은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끊임 없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1994년에 들어서 돌연적인 정세 상황이 나타나면서부터 북한의 상반기 무역액은 불과 1.7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그 주요 원인은 환율의 조정, 부가 가격 세금의 설립, 기초 시설 재료 수출입 가격의 상승, 자동차 시장 불경기 등이었다.

중국이 계속하여 변경 무역의 관세 우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북한으로서 는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만약 중국이 계속 관세 우대 조치를 유지한다면, 현재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중간 무역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수출 산업이 없는 북한은 노무 수출에 의뢰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편, 북한은 아직도 러시아에의 노무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럼으로써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목재, 생산품을 얻어서 중국으로 재차 수출할 뿐만 아니라, 또 한국, 일본 등의 지역에도 수출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 북한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탁 가공은 증가되고 있다.

만약 노무 인원의 인권, 사망 등의 문제들이 해결·완화된다면, 북한은 또다시 동남아·중동 지역으로 대량의 노무 인원들을 파견할 것이다. 사실상 북한은 1993년 12월, 이미 우호 국가인 라오스와 경제 협력 프로젝트의 회담을 진행하여 라오스에 2만 명의 삼림 채벌 노무 인원들을 파견하기로 계획하였으며, 그외 북한은 또 중동과 아프리카주에도 노무 인원들을 파견하기로 계획하였다. 과대한 노무 수출은 이미 북한의 국내 산업, 특히 농업 생산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었다. 북한이 오직 청부책임제를 도입하여 농업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 수출 산업을 扶持하는 것만이 북한의 경제 번영과 발전의 출로라고 생각한다.